

여수 세계섬박람회, 생태·비전 ‘융복합 축제’ 준비 착착

주행사장 7월말 준공 목표 순항
8개 텐트형 전시관 등 조성 착차
개도·금오도 캠핑·힐링 체험 등
30개국 참여 다채로운 공연 마련

여수 돌산 진모지구 일원에서 열리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가 개막 90여일을 앞두고 성공 개최를 위한 막바지 준비에 돌입했다.

1일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박람회는 전시 관람 중심의 기존 방식을 벗어나, 세계 최초로 '섬' 자체를 주제로 생태와 문화, 미래 비전을 온몸으로 경험하는 융복합 축제로 꾸러진다.

우선 돌산 진모지구 주행사장의 전체 공정은 현재 73%를 기록 중이며, 오는 7월 말 준공을 목표로 순항하고 있다.

랜드마크인 '주제섬'을 비롯해 바다 환경을 생

동감 있게 구현한 '해양생태섬', 도심항공모빌리티(UAM) 실물 기체와 수소 선박을 확인할 수 있는 '미래섬' 등 8개의 텐트형(TFS) 전시관이 들어설 예정이다.

또한 30개 국가와 3개 국제기구가 입점하는 '국제교류섬' 전시관을 통해 각국의 섬 정책과 문화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으며, 야간에는 미디어아트와 조명이 어우러진 색다른 풍경이 연출된다.

축제의 열기를 더할 총 133회의 다채로운 공연도 매일 관람객을 맞는다. 거문도 신지개 설화를 모티브로 한 창작 뮤지컬 개막식을 시작으로, 그리스와 페루 등 15개국 공연단이 참가하는 '아일랜드 프렌즈 데이', K-POP 콘서트 등 대중성과 전문성을 모두 확보한 무대가 펼쳐진다.

무엇보다 이번 박람회의 가장 큰 차별점은 실제 섬을 오가며 즐기는 '부행사장' 체험 프로그램에 있다.

개도 부행사장에서는 섬 캠핑과 예술의 밤 페스티벌, 요가·필라테스 등 웰니스 프로그램이



개막 90여일을 앞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주행사장 외부 전경 모습.

(여수시 제공)

운영되며, 금오도에서는 해안 절벽길로 유명한 비렁길 스탬프 투어와 함께 섬 오공 식재료로 차

려낸 '섬 힐링 밥상' 등 21종의 다채로운 체험이 마련돼 진정한 '섬의 하루'를 선사한다.

관람객 유치를 위한 파격적인 혜택도 눈길을 끈다. 박람회 기간 개도와 금오도를 오가는 6개 항로의 여객선 운임 50%를 지원하며, 전남 도와 여수시는 타지역 관람객이 섬 숙박이나 특산품 구매 등에 일정 금액을 지출할 경우 지역화폐로 환급해 주는 '섬 여행 인센티브' 사업을 별도로 운영해 실질적인 체감 혜택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대중교통 편의성 개선을 위해 돌산권과 도서 지역을 운행하는 시내버스 16개 노선 2대가 전면 무료로 운행되며, 주말에는 최대 60대의 셔틀버스가 투입돼 접근성 불편을 해소한다.

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 관계자는 "이번 섬 박람회는 얼마나 많은 것을 보여주느냐보다 관람객이 얼마나 깊이 섬을 경험하고 가느냐에 중점을 뒀다"며 "오는 9월 전남 여수를 찾는 전 세계 관람객들이 기대 이상의 감동과 추억을 가져갈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시설 공사과 콘텐츠 운영, 손님맞이 대책에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여수=김진선 기자

‘명품 곡성체리’ 본격 생산...소비자 입맛 공략

郡, 2017년부터 특화단지 육성
45농가 20ha 규모...공동 출하

본격적인 수확에 돌입한 명품 곡성체리가 소비자 입맛 공략에 나선다.

1일 곡성군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수확에 들어간 체리가 곡성농협APC를 통한 공동선별 출하를 시작했다.

군은 2017년부터 체리 특화단지를 전략적으로 육성해오고 있다. 올해로 9년 차를 맞이한 초기 식재 과원들이 본격적인 성숙기(열매가 잘 맺히는 시기)에 접어들면서 매년 출하량이 견고한 성장세를 보인다.

2025년 말 기준 45농가, 20ha 규모에서 생산되는 곡성체리는 엄격한 공선출하 기준을 거쳐 군

일화·규모화해 전국 최고의 프리미엄 체리 산지로 도약하고 있다.

곡성체리의 경쟁력은 농업인의 재배역량과 생산인프라로 '저비용 체리전용 간이비거림시설 규격 3중'을 자체 개발해 농가에 보급했으며, 이를 통해 수확기 열과 피해를 최소화하고 당도를 극대화했다.

더불어 수확기 지면에 반사필름을 피복해 햇빛 반사율을 높임으로써, 선명한 빛깔과 고른 착색을 유도하는 등 품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수입산 체리와의 승부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출하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당도 17브릭스(Brix) 이상 ▲착색도 70% 이상 ▲엄격한 3단계 크기 선별 등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통과한 고품질 체리만 시장에 선보인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곡성체리는 이미 대형마트 바이어와 가락시장 도매법인 관계자들 사이에서 두터운 신뢰를 얻고 있다.

김정중 곡성체리공선회 회장은 "지속적인 행정 지원과 맞춤형 기술지도로 곡성체리가 지역 농가의 든든한 틈새 소득과수로 자리잡아가고 있다"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프리미엄 브랜드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전 농가가 고품질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올해 4월 기상 악화에 따른 냉해 피해로 착과량이 일부 감소했지만, 철저한 선별과 재배 인프라 관리를 진행했다"며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전국 최고 품질의 명품 체리'만을 생산·출하하겠다는 각오로 농가 지도와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곡성=김영필 기자

구례군-광양시 공직자, 고향사랑기부 '훈훈'

구례군은 "최근 구례군과 광양시 소속 공직자가 각각 86명씩 자발적으로 참여해, 양 지자체에 880만원씩을 교차 기탁하며 고향 사랑의 마음을 나눴다"고 1일 밝혔다.

두 지자체는 지난 2024년부터 꾸준히 상호 기부를 이어오고 있다. 특히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유

관기관과 사회단체 등 다양한 분야로 참여가 확산하고 있어, 지자체 간 끈끈한 연대와 상호 협력의 대표적인 수범사례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구례군은 이번 상호 기부부를 기점으로 제도 활성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기부자들의 체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특색 있는 답례품을

추가로 선정하고, 지역 내 각종 축제 및 행사 시 현장 홍보부스를 운영하는 등 다각적인 홍보 활동에 나선다.

구례군 관계자는 "3년 연속 상호 기부에 흔쾌히 동참해 주신 두 지자체 공직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를 바탕으로 지역 간 우호를 증진하고 동반 성장의 든든한 기틀을 다져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구례=김세중 기자



순천시는 최근 순천자연휴양림 일원에서 전국 참가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회 생태문명전환 촉진자 양성과정 캠프'를 진행했다.

(순천시 제공)

순천시, 생태문명전환 촉진자 양성 캠프 '성료'

자연휴양림서 비인간 존재·공존 모색
순천시가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포용적 해법을 모색하며 새로운 '생태민주주의' 공론 문화를 이끌고 있다.

1일 순천시에 따르면 최근 순천자연휴양림 일원에서 전국 참가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회 생태문명전환 촉진자 양성과정 캠프'

를 진행했다. '생태민주주의와 생태공론장'을 주제로 열린 이번 캠프의 핵심은 '생태공론장'으로, 참가자들은 비인간 존재에게 발언권을 부여하는 '사물의 의회'에서 착안해, 동·식물 등 자연의 입장을 직접 대변하며 열린 결론을 도출하는 실험적인 숙의 토론을 펼쳤다. 이날에는 각자의 생태 프로젝트를 전문가와 함께 심화시키는 시간을 가졌다.

앞서 시는 캠프 개막 전인 지난달 29일 '만물 공동회 준비 워크숍'을 열고 올해 행사 운영의 초석을 다졌으며, 이를 바탕으로 오는 9월 비인간 존재까지 주제로 참여하는 공공축제형 의회 실험인 '만물공동회'를 개최해 토론과 예술이 결합한 생태민주주의를 시민 일상에 정착시킬 계획이다.

한편, 순천시 생태문명전환 교육과정인 '순천 에코칼리지'는 오는 11월까지 이어지며, 이달에는 '동학'을 주제로 한 온·오프라인 과정이 운영된다. /순천=곽동현 기자

장흥군, 지역 현안 해결 '민·관 협력망' 가동

5개 기관·단체 협력 논의

장흥군은 지역 내 복지과 교육, 돌봄 등 복합적인 지역사회 현안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유관 기관 간의 촘촘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1일 장흥군에 따르면 군농어촌신활력센터는 최근 힐링테라피센터에서 업무협약을 맺은 5개 기관·단체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협력 체계 구축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센터를 비롯해 장흥지역자활센터, 장흥종합사회복지관, 장흥군가족센터, 장흥마을교육공동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농촌 지역의 일자리와 복지, 공동체 활성화 등의 현안이 얽혀있어 개별 기관의 단독

대응만으로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유사 사업의 중복과 대상자 편중 현상을 막고, 기관 간 정보 공유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센터를 중심으로 한 적극적인 연계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참여한 5개 기관은 우선 협력 체계를 구축해 분기별 1회 대표자 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합의했다.

배경선 군농어촌신활력센터장은 "지역의 현안은 복지, 교육, 일자리, 지역개발이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며 "이번 간담회가 각 기관의 뛰어난 전문성을 하나로 모아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든든한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흥=노홍익 기자



담양군, 아동권리 교육 프로그램 운영

담양군은 "최근 담빛청소년문화의집 대강당에서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 25명을 대상으로 아동권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1일 밝혔다.

(사진)

이번 교육은 아동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기초 소양을 기르고 자신의 권리와 책임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마련됐다.

강의는 '건강한 디지털 교육', '건강한 성장 교육' 등 디지털 환경에서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과 올바른 성 가치관을 형성하는 내용으로 구

성했으며, 참여자들은 아동의 권리를 이해하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태도를 배웠다.

박은희 향촌복지과장은 "아동들이 자신의 권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며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 발굴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담양군 드림스타트는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공평한 출발 기회 보장을 위해 보건·복지·보호·교육 분야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담양=정승균 기자

장성교육지원청 "중등 교사 논술형 평가 전문성 키운다"

5일까지 장성·곡성 등 4개 지역 교사 문항 직접 개발 등 실습형 연수 진행

장성교육지원청이 중학교 교사들의 논술형 평가 설계와 문항 출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1일 장성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지난달 26일부터 오는 5일까지 '2026 중학교 교과별 논술형 평가 문항 출제 역량 강화 연수'를 운영한다.

이번 연수는 단편적인 지식 암기에서 벗어나, 학생의 사고 과정과 문제해결력을 종합적으로

살피는 논술형 평가를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 대상은 장성을 비롯해 곡성, 담양, 함평 등 4개 지역 중학교에 근무하는 국어·수학·영어·사회·과학 교사들이다. 참여 교사들은 교과별 특성과 성취기준을 반영한 논술형 평가 문항을 직접 개발해 보고, 객관적인 채점 기준표 마련과 학생 맞춤형 피드백 방안까지 함께 모색한다.

교육청은 이를 통해 교사들이 평가를 '단일 문항 제작'이 아닌, 수업 목표부터 피드백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교육 과정으로 설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성=김태기 기자